

주요개념 : 신생아 아버지, 부성애착

일 병원 신생아 아버지의 부성애착

오진아* · 오영아** · 남영희**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부모가 된다는 것은 성인으로 성숙되어가는 과정의 한 단계로 정상적인 생활사건이며, 앞으로 맡게 되는 부모 역할에 대한 적절한 적응력을 필요로 하는 역할전환의 시기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여성한국사회연구, 1995). 부모는 신생아가 출생 후 처음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존재로, 신생아의 성장과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전통 한국 사회에서는 산전과 산후에 아버지의 역할 참여가 제한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남편과 아버지로써 임신과 출산을 부인과 함께 경험하기를 원하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방은령, 1986).

임신, 출산 및 양육과정에서 아버지는 단지 산모의 지지자로서의 역할 외에도 신생아와 산모의 건강문제에 대한 결정권이나 보호자로서 역할과 조기접촉이 어려운 산욕기 산모와 신생아간의 연

결고리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아버지는 아동의 성역할뿐만 아니라 인지 발달, 사회성 발달, 도덕성 발달, 정서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아버지의 역할 즉, 부성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긍정적인 부성애착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주경숙, 2005). 특히,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동기 이전에 결정된다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신생아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애착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황은주, 2003). 그러므로 부성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물론 신생아 아버지의 실제적인 요구를 수용하고 부성애착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신생아 아버지의 부성애착정도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실제 간호현장에서 아버지 역할이나 애착에 대한 인식이 낮아 아버지 역할수행을 포함한 아버지를 위한 중재전략은 미흡한 채 어머니의 요구와 어머니와 신생아의 관계에 주로 초점을 둔 간호가 제공되었다(김지현, 2002). 아버지의 자녀

* 인제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좋은문화병원 신생아실 간호사

교신저자 오진아 : ohjina@inje.ac.kr

에 대한 애착정도와 태도는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에 부정적 또는 긍정적 영향을 주게 되는데, 아버지의 임신과 출산, 양육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참여는 신생아에 대한 애착을 강화시키며 아버지 역할을 보다 잘 할 수 있다. 특히 출생 후 첫 3일은 애착형성에 중요한 시기로 아버지와 신생아의 애착을 형성하는데 중요하고, 초기 민감 시기의 접촉이 아버지의 애착행위를 증진시킨다(차은주, 1985).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임순(1985)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많은 병원에서 신생아와 가족의 심리, 사회적인 요구보다는 신생아를 위해 신체적 요구에 따른 기술적인 측면에 치중하여 신생아실의 방문을 제한하고 신체적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부모와 영아의 상호작용에 있어 시각접촉, 피부접촉은 애착형성에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신생아는 부모와의 조기접촉이 어려울 경우에는 애착장애가 초래되기 쉽다(Stern & Hidebrandt, 1986).

이에 본 연구는 신생아 아버지의 부성애착 정도를 파악하고 부성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부성애착강화로 건전한 아버지-신생아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간호중재의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신생아 아버지의 부성애착정도를 파악하고 부성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신생아 아버지의 부성애착정도를 파악한다.
2. 신생아 아버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성애착 정도를 비교한다.
3. 아버지-신생아 초기상호작용과 부성애착정도의 관계를 파악한다.
4. 신생아 초기접촉시 아버지의 느낌을 알아본다.

2. 용어정의

1) 신생아

- (1) 이론적 정의 : 제태기간 37주 이상으로 출생시 체중이 2.5Kg이상인 아기
- (2)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는 부산시 일 병원 분만실에서 출생한 산모의 신생아로서 제태기간 37주 이상, 출생시 체중이 2.5Kg이상인 아기이다.

2) 부성애착

- (1) 이론적 정의 : 아버지와 신생아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애정의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응, 행동 및 지각이다
- (2) 조작적 정의 : Greenberg와 Morris(1974)의 아버지 애착 “Engrossment”의 7가지 특성을 근거로 김지영(1994)이 개발한 부성애착 측정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신생아 아버지의 부성애착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에 위치한 일 병원에서 신생아를 출산한 산모의 배우자를 임의 추출하여 본 연구참여에 동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총 100부의 설문지를 돌렸으나 충실하지 못한 설문지 7부를 제외하고 총 93부를 자료분석에 이용하였다.

3.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05년 9월 1일부터 2005년 10월 31일까지 2개월간이었으며, 신생아 출생 후 신생아실이나 산후병동에 면회 온 신생아 아버지를 연구자가 만나 개별면담하고 구조화된 설문지에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다.

4. 연구도구

본 연구의 부성애착정도 측정도구는 Greenberg와 Morris(1974)의 “Engrossment” 7가지 특성에 근거하여 김지영(1994)가 개발한 35문항의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수정하여 총 34개 문항, 7개의 하위범주로 구성하였다. 각각의 하위범주는 시각적 인식(visual awareness), 촉각적 인식(tactile awareness), 아기의 특성구분(awareness of distinct characteristics), 완전한 개체로 인식(perceived as perfect), 강한 관심의 애정(strong feeling of attraction), 심리적 고양감(experience of extreme elation), 역할인식(role perception)이며, 4점의 Likert 척도로 ‘매우 그렇다’의 4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으로 점수화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성애착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4$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4$ 로 나타났다.

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ver.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 2) 신생아 아버지의 부성애착점수는 평균,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 3) 부성애착도와 아버지-신생아의 상호작용과의 유의성 검정은 t-test, ANOVA를 이용하였고,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확인하였다.

6.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대상을 일개 병원에 한정하여 임의 추출하였고, 표본수가 제한되므로 일반화시키기에 신중한 고려가 요구된다.

III. 연구 결과

1. 신생아 아버지의 부성애착정도

대상 아버지들의 부성애착정도를 측정하였을 때 가능한 점수범위는 34-136점이며, 본 연구결과 나타난 점수의 범위는 92점에서 136점이었고 전체 평균은 117.1(± 10.8)점으로 높은 애착정도를 나타내었다. 아버지의 각 범주별 부성애착정도를 보면 신생아 아버지에게 있어 부성애착점수가 가장 높은 속성은 ‘시각적 인식’ 이었고(18.0 ± 1.9), 역할인식(17.9 ± 2.1), 완전한 개체로 인식(17.3 ± 1.9), 촉각적 인식(17.2 ± 2.1) 등의 순이었으며 부성애착점수가 가장 낮은 속성은 ‘심리적 고양감’이었다. 개별적인 문항으로 보면 ‘완전한 개체로 인식’ 범주의 “아기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생각한다”가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강한 관심의 애정’ 범주의 “아내보다 태어난 아기에게 더 주의를 기울인다”는 문항은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부성애착의 7가지 속성별 범주에 따른 아버지들의 부성애착정도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

문항별로는 “아기가 있어 기쁘다”, “아기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생각한다”, “나의 아기가 자랑스럽다” 순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아기가 잘 먹고 잘 자는지 궁금하다”도 점수가 높아 아기의 건강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기를 만지고 싶다”도 점수가 높아 아버지들의 측

<표 1> 신생아 아버지의 부성애착정도

(N=93)

변수		최소값-최대값	평균(표준편차)
아버지의 부성애착정도		92-136	117.1(10.8)
속성별 하위범주	시각적 인식	14- 20	18.0(1.9)
	촉각적 인식	12 -20	17.2(2.1)
	아기의 특성구분	10- 19	15.7(2.1)
	완전한 개체로 인식	14- 20	17.3(1.9)
	강한 관심의 애정	12- 20	16.1(1.8)
	심리적 고양감 역할인식	9- 16 11- 20	13.4(1.9) 17.9(2.1)

각적 인식도 높았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성애착정도

대상 아버지들의 연령분포는 최저 24세 최고 43세이고 평균 32.8세이었다. 학력은 대졸이 가장 많아(66.7%) 고학력 수준을 보여주었다. 경제 상태는 대상자 자신이 판단하는 경제적 수준으로 상중하로 나누었으며 분석결과 상 8.6%, 중 80.6%, 하 10.8%로 대부분이 중 이상의 수준이라고 답하였다. 직업은 회사원이 60.2%로 가장 많았으며 자영업자를 포함한 사업(16.1%), 공무원(11.8%), 교육자(2.2%)의 순이었다. 종교가 있는 경우는 54.8%, 없는 경우는 45.2%이었다. 가족형태는 대부분 부부만 사는 핵가족 형태이었고(89.2%) 부모님과 사는 대가족 형태는 10.8%에 불과했다. 한편 임신계획여부는 계획된 임신이 83.9%, 분만형태는 정상분만이 58.1%로 제왕절개 41.9%보다 많았다. 아기의 평균체중은 3.30Kg이었고, 아기의 출생순위로는 첫째가 61.3%, 아기의 성별은 여아 59.1%로 남아 40.9%보다 많았다.

각 변수에 따른 부성애착정도를 분석한 결과 신생아 아버지의 일반적인 특성과 부성애착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임신계획여부에 따른 부성애착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t=1.17$, $p=.246$) 분만형태별로도 제왕절개시와 정상분만시의

부성애착점수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609$, $p=.547$). 신생아의 특성에서 출생순위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1.97$, $p=.251$), 성별에 따른 부성애착점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1.151$, $p=.870$).

아버지의 신생아에 대한 애착정도를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경험을 조사해 본 결과 “자식에 대한 사랑은 있으나 표현은 잘 하지 않는 분이다”가 69.9%로 가장 많았으며, “자식에 대한 사랑도 많으며 표현도 잘 하는 분이다”라고 답한 경우가 25.8%, 자식에 대한 사랑도 그 표현도 부족한 분이다”가 4.3%이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 2>.

3. 아버지-신생아 초기상호작용과 부성애착정도의 관계

아버지-신생아의 초기상호작용을 처음 시각적 접촉의 시기, 만져본 시기, 입원기간 내 아기를 본 횟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3>.

신생아 아버지는 77.4%에서 분만직후에 신생아를 만났으며 입원기간 내 아기를 본 횟수는 평균 6.6회이었다. 신생아 아버지의 41.9%가 출생 당일에 신생아를 만져보았다. 아버지가 처음 본 시기와 본 횟수, 처음 만져 본 시기는 부성애착정도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성애착비교 (N=93)

특 성	구 분	실수(%)	t 또는 F	p	
아버지 특성	학 력	고졸이하	22(23.7)	F= .89	.447
		대 졸	62(66.7)		
		대학원졸	9(9.7)		
	경 계	상	8(8.6)	F= .77	.464
		중	75(80.6)		
		하	10(10.8)		
	직 업	회사원	56(60.2)	F=1.43	.230
		공무원	11(11.8)		
		사 업	15(16.1)		
		교육자	2(2.2)		
기 타		9(9.7)			
종 교	유	51(54.8)	t=-.43	.666	
	무	42(45.2)			
가족형태	핵가족	3(89.2)	t=-1.34	.182	
	대가족	10(10.8)			
신생아 관련 특성	분만형태	정상분만	54(58.1)	t= .60	.547
		제왕절개	39(41.9)		
	임신계획	계 획	78(83.9)	t=1.17	.246
		무계획	15(16.1)		
	아기성별	여 아	55(59.1)	t=-.15	.880
		남 아	38(40.9)		
아기의 출생순위	첫 째	57(61.3)	F=1.94	.150	
	둘 째	29(31.2)			
아버지에 대한 경험	세째이상	7(7.6)	F= .44	.646	
	사랑은 있으나 표현은 잘 하지 않는 분	65(69.9)			
	사랑도 있고 표현도 잘 하는 분	24(25.8)			
	사랑도 없고 표현도 하지 않는분	4(4.3)			

<표 3> 아버지-신생아 초기상호작용과 부성애착정도의 관계 (N=93)

요 인		실수(명)	백분율(%)	F	P
처음 본 시기	분만직후	72	77.4	.05	.831
	출생후4시간 이내	16	17.2		
	출생후24시간이내	5	5.4		
입원기간내 본 횟수	1- 5회	51	54.6	.10	.961
	6-10회	32	34.5		
	11-30회	10	10.9		
처음 만져 본 시기	출생당일	39	41.9	1.05	.415
	출생후 3일이내	5	5.4		
	퇴원후	49	52.7		

4. 신생아 초기접촉시 아버지의 느낌

“아버지가 아기를 처음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이 셧습니까?”의 서술형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양하

였다<표 4>. 주제별로 보면 신비감(32.4%), 기쁨 (30.1%), 감동(16.1%), 떨림(5.3%)이었고, ‘귀엽다, 닮았다’의 아기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느낌을 말 한 것도 7.6%에 이르렀다. 그리고 신생아와 산모

〈표 4〉 신생아 초기접촉시 아버지의 느낌

(N=93)

주제	내용	실수(%)
신비감	신기하다, 신비하다, 신선하다, 경이롭다	30(32.4)
기쁨	좋다, 기쁘다, 행복하다, 반갑다	28(30.1)
감동	감동이다, 감격이다, 눈물난다, 몽클하다	15(16.1)
외모	귀엽다, 달았다, 이쁘다, 사랑스럽다	7(7.6)
떨림	떨린다, 얼떨떨하다	5(5.3)
건강염려	건강해서 다행이다, 부인이 걱정된다	5(5.3)
답답함	무감각, 무덤덤하다	3(3.2)

의 건강을 염려하는 표현이 5.3%, 또 아버지 3.2%는 ‘무감각, 무덤덤하다’고 하였는데, 그들의 신생아는 출생순위가 3번째인 공통된 특징이 있었다.

IV. 논 의

본 연구는 신생아 아버지의 부성애착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부성애착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부성애착의 속성별 하위범주에서 ‘시각적 인식’이 ‘촉각적 인식’보다 점수가 높고, ‘역할 인식’이나 ‘완전한 개체로의 인식’이 ‘강한 관심의 애정’의 범주보다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손인아(1983)의 연구에서 한국 아버지의 애착행위는 ‘바라보다(36.8%)’, ‘웃어보다(25.3)’의 원접행위가 ‘만져보다(18.4%)’ 등의 근접행위보다 많이 나타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촉각적 인식의 “아기의 반응을 얻기 위해 자극하고 싶다.”가 두 번째로 낮은 점수를 나타낸 것도 대상 아버지는 아기에 대한 태도가 소극적이어서 아기를 바라보는 데에만 그칠 뿐 반응을 얻기 위해 자극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은 주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역할 인식이나 신생아를 완전한 개체로 인식하는 것이 아동에 대한 강한 관심의 애정을 표현하는 것보다 강한 것도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표현적 역할이 강조되지 않았던 우리 문화의 영향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아기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생각한다”는 문항이 가장 높은 점

수를 나타낸 결과는, 본 연구 대상 아버지들은 태교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우리나라 전통적 신념과 마찬가지로 갓 태어난 신생아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생각하는 인간존중의 사상과 양육의 의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특징적인 것은 “아내보다 태어난 아기에게 더 주의를 기울인다”는 문항이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아기가 태어났다고 하여 아내와의 결속이 파괴되지 않음을 의미하며 부부와 부모의 경계가 뚜렷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성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신생아 아버지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부성애착 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신생아의 특성에 따른 부성애착점수에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강남미(1988)와 김지영(1994)의 연구에서 성별과 부성애착정도는 관계가 없었던 결과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신생아의 성별에 관계없이 매우 애정적인 태도를 가졌다. 출생순위는 김지영(1994)이 첫째 아이의 경우 유의하게 높은 부성애착점수를 나타내었다는 결과와는 달리 출생순위에도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저출산에 따른 인식의 변화로 출생순위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임신계획여부, 분만형태는 부성애착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Fortier(1988), 김지영(1994)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임신이 계획되지 않았을지라도 아버지는 임신기간 동안 임신 사실을 인정하고 태어날 아기를 받아들여 출산 후

아기와의 관계형성에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아버지에 대한 경험에 대한 각 유형도 부성애착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May(1982)는 아버지의 신생아에 대한 애착정도는 그 자신의 부모에 대한 개별적 경험, 부모의 역할모델의 효과 등에 좌우된다고 하였는데, 과거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경험, 역할모델의 영향으로 사랑과 그 표현을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많이 경험한 신생아 아버지일수록 애착정도가 높다고 하였다.

한편, 신생아를 처음 본 시기, 본 횟수, 처음 만져본 시기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던 아버지-신생아의 초기상호작용 역시 부성애착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Bowlby(1969)는 애착의 목적은 근접을 강화하며 접촉하는데 있다고 했고, Bowen(1980)은 부성애착행위들을 신생아에게 근접과 접촉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Rubin(1936)도 신생아는 촉각이 가장 예민하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애정있는 접촉은 부모 자녀 관계형성에 필수조건이라고 하며, 접촉행위에는 일련의 순서가 있어 손가락으로 신체일부를 건드리는 데서부터 점차 손바닥으로 신체 전체를 만진다고 했듯이 접촉은 애착의 가장 기본행위이다. 그러나 현재의 의료체제 내에서는 아버지와 신생아 접촉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고 허용된 수유시간에도 아버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 아버지가 신생아의 접촉은 쉽지 않다. 초기 민감시기의 접촉은 애착형성을 위해 중요하고 초기접촉이 애착행위를 증진시킨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경우 병원의 정책에 의해 미약한 시각적 접촉만으로 초기 접촉을 대신하였기 때문에 초기 접촉이 애착정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아버지에게 잠재되어 있는 아기를 안아보고, 만져보고 싶은 욕구는 초기 접촉과 문화적 배경의 영향으로 증진되어 표출하게 된다. 그러므로 간호사는 아버

지에게 신생아를 만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고 아기를 만지는 방법과 만질 수 있는 용기를 줌으로써 아버지와 신생아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애착형성과 신생아 양육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하겠다.

본 연구에서 자료수집의 어려움으로 미숙아 아버지의 부성애착정도의 비교연구는 시행되지 않았으나 김지현(2002)의 연구에 의하면 고위험 신생아 아버지와 정상 신생아 아버지의 부성애착 정도에는 차이가 없었으며,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와 애착정도가 높은 경우에는 자신의 신생아에 대한 애착정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생아의 출생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스트레스가 많은 사건인데, 고위험 신생아가 출생하게 되면 아기는 출생 후 즉시 중환아실로 옮겨져서 부모와는 격리되고, 부모들은 더욱 소외되게 되며, 위기와 스트레스는 가중된다. 애착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어렸을 때 주관적으로 경험하고 내면화되며 성인기의 상호작용의 질에 따라 형성된다. 애착은 출생 후 1년 이내에 주로 형성되는 감정적인 관계로서 출생 후 5일 이내인 민감시기(sensitive period)의 접촉과 상호작용은 애착적 결속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하다(Brown,1980). 그러므로 고위험 신생아 아버지의 애착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버지에게 분만 후 빠른 시간 내에 신생아를 대면할 수 있는 기회와 만져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김지현, 2002). 이는 아버지가 가족분만실에서의 분만과정 참여가 분만직후에 아기를 대면하고 접촉시간이 연장되어 아기와의 상호작용이 촉진되어 부성애착과 아버지역할 자신감을 증진시키므로 임상에서는 아버지의 가족분만참여가 필요하다(황은주, 2003). 박시영(2004)의 연구에서도 아버지가 미숙아에 대한 촉각 자극을 경험하는 것은 돌보기 자신감과 아버지의 미숙아에 대한 애착증진에 효과가 있다

고 하였다. 또한 촉각 자극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아 경제적이고, 전문적이고 어려운 기술을 요하지 않으므로 일반 보호자들이 미숙아에게 손쉽게 행할 수 있으므로 부성애착증진을 위한 간호중재로 임상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간호사가 아버지에게 이러한 촉각 자극의 교육기회를 제공하므로 인하여 부성애착을 증진하여 아기와 아버지의 건강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아버지와 신생아의 애착을 증진하는 간호중재는 정보시대를 맞아 더욱 다양해져 최용백과 유일영(2005)의 연구에서는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미숙아의 사진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미숙아 부모의 애착행위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미숙아의 부모뿐 아니라 환자를 자주 방문할 수 없는 환자의 가족을 위한 간호중재 방법으로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05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부산시 일 병원에서 출생한 신생아 아버지 93명을 대상으로 신생아 아버지의 부성애착정도를 조사한 것이다. 연구결과 신생아 아버지는 높은 부성애착정도를 보였으며, 속성별 하위 범주에서 촉각적 인식이 가장 높았다. 신생아 아버지의 일반적 특성과 분만형태, 임신계획, 아기 성별, 아기의 출생순위, 아버지에 대한 경험 등은 신생아 아버지의 부성애착정도에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는 일 병원의 결과이므로 이상의 결론에 근거하여 대상자의 규모를 확대할 뿐 아니라 저체중 출생아와 중증 고위험신생아의 아버지 등을 대상으로 부성애착정도를 연구하고 비교검토하는 추후 연구가 요구되며, 부성애착형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대상자를 위한 다양한 간호중재방법의 개발되어야 하겠다.

참 고 문 헌

- 강남미 (1988). 부성역할의 간호중재 원리에 관한 문헌연구. 대한간호, 27(5), 69-75.
- 김지영 (1994). 아버지의 신생아에 대한 애착정도. 간호학회지, 25(2), 330-430.
- 김지현 (2002). 고위험 신생아 아버지와 정상 신생아 아버지의 애착정도비교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시영 (2004). 아버지의 미숙아에 대한 촉각자극 경험이 돌보기 자신감과 애착증진에 미치는 효과,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방은령 (1986). 부모역할에 대한 책임의식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차이. 한국아동학회지, 33-53.
- 여성한국사회연구 (1995). 가족과 한국사회. 경문사.
- 왕임순 (1985). 지지적 간호가 고위험 신생아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과 애착행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주경숙 (2005). 초산모 배우자의 아동기경험, 부성애착, 부성역할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은주 (1985). 아버지의 사전교육이 신생아의 애착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용백, 유일영 (2005). E-mail을 이용한 미숙아 정보제공이 부모의 애착행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은주 (2003). 아버지의 가족분만 참여유무에 따른 부성애착과 역할자신감의 비교. 고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owlby, J. (1969).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Inc.
- Brown, M. A. (1986). Social support, stress and health: A comparison of expectant mothers

- and fathers. Nursing Research, 35(1), 72-76.
- Fortier, J. C. (1988). The relationship of vaginal and cesarean births to father-infant attachment. Journal of Obstetrics, Gynecologic, and Neonatal Nursing, 17(2), 128-134.
- Greenberg, M., & N. Morris (1974). Engrossment: the newborn's impact upon the father.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ic, 44(4), 520-531.
- May, K. A. (1982). Three phase of father involvement in pregnancy. Nursing Research, 31(6), 337-342.
- Rubin, R. (1963). Maternity care on our society. Nursing Outlook, 11, 519.
- Stern, M., & K. A. Hidebrandt (1986). Premature stereotyping: Effects on mother infant interaction. Child Development, 57, 308-355.

ABSTRACT

Key Words : Father of neonate, Paternal attachment

The Paternal Attachment to Neonate in One Hospital

Oh, Jina* · Oh, Young A** · Nam, Young Hui***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paternal attachment to neonate, and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paternal attachment. The purpose was to make the base data for nursing intervention to improve paternal attachment.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93 fathers whose partners have delivered normal neonate in 1 hospital in Busan. Data were collected from Sep. 1th to Oct. 31th 2005 by a self-report questionnaire. The instrument for this study was based on 7 kinds of characteristics of paternal attachment by Greenberg & Morris(1974), and modified by researchers. The statistical methods for data analysis were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t-test, ANOVA with SPSS program Ver 10.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Fathers had the high degree of paternal attachment to neonate. But, there were not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paternal attachment and the father'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pregnancy plan, delivery pattern, delivery order, sex of neonate and past experience. Also there were not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paternal attachment and early visual contact frequency of father-neonate. Further research about factors affecting paternal attachment to neonate and high risk neonate as well as low birth weight neonate is required.

* Assistant Professor, Depa of Nursing, Inje University

** Nurse, Nursery, Good Moonhwa Hospital

*** Head Nurse, Nursery, Good Moonhwa Hospital